

권은희 수성이나 이용섭 탈환이나 ... 광주 최대 빅매치

■ 누가 뛰나

전·현직 의원 간 맞대결이 점쳐지면서 전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구다.

2014년 7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더민주에 복당하면서 전·현직 의원 간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된다.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더민주와 국민의당 자존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용섭 전 의원(65)과 김중구(48) 공인중개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의원은 20개월만에 화려하게 자신의 전정인 더민주에 복당하면서 비대위원, 공동선대본부장, 총선 정책공약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14회 행정고시 출신의 이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절 재정경제부 세계시장, 관세청장, 국제시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에서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재선 동안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 전역 국비사업 지원 ▲남부대 국제수영장 유지 ▲풍영정 전변 숲길조성과 자연생태관찰 보행길 조성 ▲첨단쌍암공원, 무량공원, 음암공원 도시 숲 조성 등의 지역 현안사업을 풀어내기도 했다.

자신이 재선에 성공했던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이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약 20개월 만에 더민주에 복당했다. 광산을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떠났다.

그러나 당시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안 대표의 측근인 윤정현 현 광주시장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그해 5월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당 경선에서 강운태 시장에게 근소한 차로 패했다.

그는 최근 중앙당과 선거구를 오가며 주경야광(晝夜夜·낮에는 서울 중앙당 활동, 밤에는 광주 지역구 활동) 행보를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달말까지 지역민의 5대(일자리, 교육·교육, 주거, 노후, 안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 투어'를 벌이며 20개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름	송환기	김중구	이용섭	권은희	최선욱	문정은
나이	64	48	64	42	61	29
약력	·현) 새누리당 광주 광산을 당협위원장 ·전) 한나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전) 국민은행 근무 ·전) 현대자동차 근무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 18·19대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비서실장	·현) 광산 미래경제포럼 상임 고문 ·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현) 정의당 광산구 위원회 위원장 ·전) 정의당 부대표



더민주, 이용섭·김중구 예비후보로 등록

국민의당, 권은희·최선욱 당내 경선 예고

새누리 송환기 거론, 정의당 문정은 출사표

월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박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광산을 선거구에서 재선을 한 만큼 아직까지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했고, 시장 도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2년도 안 돼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은 차기 광주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구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갖고 이번 총선에 나섰다.

◇국민의당=현역 의원인 권은희(42) 의원과 최선욱(61) 광산미래경제포럼 상임고문이 출사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소속 당시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권 의원은 사법고시를 통해 경찰에 입문했고,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을 폭로했다. 이후 '정권 심판'의 상징성을 띠고 전략공천을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재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탓에 2년 남짓한 임기였지만,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추진을 이뤄내는 등 남다른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다.

지난 1966년 무등산 정상에 방공포대가 들어선 지 50년만에 어떤 거물급 정치인들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임기 내에 풀어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으로 광주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정부 예산안을 반영하면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또한, 지역구인 '하남산단 혁신산단 지정'을 통해 총 사업비 2994억원 투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경제분야 핵심인 삼성전자 광주시업장 베트남 이전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에 '협력업 체보호법'(가칭) 제정의 당론 채택을 제안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하지만, 권 의원은 보궐선거로 지역구에 입성해 2년 남짓한 임기밖에 되지 않아 조직력이나 지역 기반이 약한 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 의원에 맞서 전진배 공동대표와 박주선 의원 등과 두루 친한 것으로 알려진 최선욱 광산미래경제포럼 상임고문이 공천 경쟁에 뛰어 들었다.

최 예비후보는 평화민주당 시절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민주당 등을 거쳐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국민의당 후보로 나섰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제 고향 광산의 발전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며 주권이 제대로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도 오래 몸을 담근 했지만, 각종 기업 대표이사 등을 영입하며 실무 경제 전문성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광산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광산여성종합센터 설립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시아 프랜들리 문화공원 조성 ▲광주 빛그린산단의 국가산단 지정 및 미래자동차 산학연 특구 지정 ▲하남산단 현대화 및 하남지역 생활권 환경개선 사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의당=문정은(29) 광주시당 광산구 위원장은 18일 "정년 살리는 밥그릇 싸움을 하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광주·전남 전 선거구에서 가장 젊은 청년 후보로 꼽힌다.

그는 젊은 후보답게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청년문제를 화두로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는 전·현직 의원들의 맞대결 속에서도 차별화를 꾀하며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이며 모두가 청년 문제를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이제 우리의 문제를 청년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청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정치는 결국 정부세금의 우선 순위를 다루는 일이다"며 "청년의 문제, 청년복지의 문제를 적극 쟁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가능성을 만들어가겠다"면서 향후 청년 관련 10대 공약과 지역 공약을 릴레이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권은희 의원과 맞대결을 펼쳤던 송환기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현의원 맞대결 관심 ... 더민주-국민의당 자존심 싸움

■ 관전 포인트

광산은 무엇보다 전·현직 의원 대결의 빅매치가 관심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다른 예비후보들이 있어 경선이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두 명의 전·현직 의원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가 모두 당내에서 비종교인 인물이란 점에서 두 후보가 맞붙을 경우 양당이 두 후보의 당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 4·13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 판세는 이용섭 전 더민주 의원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보다 18%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합뉴스·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광주 광산구의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4.4%포인트),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지지도는 42.0%로 권 의원(23.7%)을 18.3%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완·신창지구 아파트단지 젊은 유권자 많아 변수

■ 선거구 특징

광주 광산 선거구는 수완지구·신창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18대 총선부터 갑·을 지역구로 분구됐다. 을 선거구는 비아동, 첨단 1·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으로 구성됐다.

인구는 24만명에 이르고, 지난 19대 총선 당시 유권자수는 16만여명이었다.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들

이 들어서면서 젊은 유권자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평균 연령 30대 초반의 젊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 젊은 유권자들의 '바람'이 일지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산은 단 한 번도 더민주 소속 의원의 당선 을 허용하지 않았다. 갑과 을이 나눠진 18대에는 통합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의원이, 19대에는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당선됐고, 19대 재보선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당선됐다. 통합민주당과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민주의 전신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허 단열정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뿔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수정
061-461-1800
H. 010-3631-0372

환상의 섬 제주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제주아이브 1982-24 (9월) (9월) (9월)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체주도다운 리조트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도움을 직접 수임하여 정성껏사랑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스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골프, 롯데캐슬힐스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영실코스 15분, 삼관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차단, 차량이동시간임
소풍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알리바이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객실, 성수기, 중성수기, 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별라 15평 동나무원형 1박 + 4박 or 1박 2박 24시간 78,900원 (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안내	300평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석식가능